

**사상 첫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 및  
 세계 시장 점유율 3%대 달성 목표**  
 -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산업 등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  
 「수출 진흥 대책」 수립

- 정부는 올해 무역정책 목표를 사상 첫 세계 10대 수출국 및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대 진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 우리나라는 '88년 최초로 수출시장 점유율 2%대에 진입한 이후 수출규모 11~13위에서 21년째 정체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 한국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 및 순위 : '73) 0.6%(30위) → '88) 2.3%(11위) → '95) 2.6%(12위) → '08) 2.6%(12위)
  - 경기침체에 기업의 적극적 시장개척 활동지원을 강화한다면 2%대 트랩에서 탈피하고 향후 경기 회복시 비약적 수출확대의 확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李允鏞 지식경제부장관은 16일 오전 李明博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新무역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출 진흥 대책」 을 보고함

◆ 장 소 : 일산 KINTEX 209호 회의실  
 ◆ 참석자(총 70여명) : (무역업계) 주요 수출기업 CEO, 중견·중소 수출기업 대표, 무협·KOTRA·수보 등 수출지원기관장, (행정부) 지경부장관, 금융위원장, 재정부·농식품부 차관 등

□ (수출입 재전망) 지경부는 '08.12월 수출 4,267억불, 수입 4,148억불을 전망한 바 있으나 국내외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출입 전망을 다시 하였음

○ 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한 모델 분석과 업종별 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출은 △10%대 감소한 3,650억불 내외, 수입은 △20%대 감소한 3,475억불 내외로 무역수지는 150억불~200억불 수준의 흑자가 전망됨

□ (新 무역정책 목표 설정) 이번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지원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사상 첫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과 세계시장점유율 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지식경제부는 2009년 수출 진흥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① 수출대금 즉시·조기 현금화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에 3조원 규모의 수출 납품대금 현금 결제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중소기업이 어음을 이자부담 없이 즉시 현금화(수출보험공사)
  - 기업의 외상수출채권을 매입한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 수출내고 보증기간도 확대(120일→180일)하여 해외 바이어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애로 해소
  - 수보-시중은행간 수수료 인하 MOU 확대(10개→18개), 무역금융 Refinance(수은)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보증료 등 금융비용 인하

② 공세적 시장개척 강화를 위한 수출보험제도 개선

- 중남미, CIS 등 수출리스크가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업체별 지원 한도 확대(최대 2배) 및 해외마케팅보험 확대(500억원→1,000억원), 본지사금융보험 부보율 100%로 확대(현행 95%) 등
- 3,700억원 규모의 '09년 추가발생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시기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환변동보험 운영 조기 정상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지원
  - \* 지원한도 확대(40% → 60%), 청약한도 제한 폐지 등
- 수출보증부문에만 시행하던 고의·중과실이 없는 취급 임직원의 한시적 면책제도를 수출보험부문까지 확대 추진('09년말까지)

③ 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 추가 확대 ('09년 522억원 + 추경 α)

- \* 해외전시회 : (당초) 128회, 2,400개사 → (변경) 148회, 2,900개사
- \* 국내전시회 바이어 초청 확대 : '08) 14만명 → '09) 15만명

④ 수출시장 축소에 대응한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 국제기구 및 주요국 벤더등록업체 확대, 조달전문전시회 참가 적극 지원
  - \* 벤더등록업체 확대(예 : UN) : '08)33개사 → '09) 70개사
  - \* 일본 조달시장 개척단 파견('09.9), 미국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09.10) 등
-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R&D를 통한 중간재(부품, 기술 등)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R&D 파트너 매칭지원센터 설치('09.5, Kotra) 등

⑤ 수출입절차 간소화, 수출입 물류 개선, 관세부담 완화 등 무역부대비용 절감

- 은행, 선사 등 전산망을 연결 원스톱 수출입 대금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운송장 발급 서비스대상을 항공화물까지 확대

- 국립검역원, 식약청 등 수출입 요건확인기관과 업무 연계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인증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신규 제공
- 지경부, 국토부, 관세청간 물류정보망을 통합하고, 중진공과 우량물류업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저렴한 수출입 물류 서비스 제공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관세환급기간 연장(2년이내 → 5년이내) 및 일시적 자금애로 수출기업의 관세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등
  - \* 기한연장으로 연간 351억원 금융비용 절감효과 예상(관세청)

⑥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각인된 “한국=자유무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자간·양자간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자유무역주의 지지여론 확산

- 아울러, FTA 체결과 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기술규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기업의 대응 원활화
  - \* 우리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율 : 칠레 98.7%, 한-ASEAN 14.1%

□ 이와 함께,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원화강세(환율하락) 이후에 대비한 수출품목 다양화 노력의 일환으로 5대분야 9대 품목을 신 수출동력을 선정하고 수출산업화 전략을 논의함

<새로운 수출 유망 분야 및 수출 전략>

분 야	수출산업화 전략	담당부처
1. 녹색성장산업 수출동력화	신재생 ◎목표: '08)12.7→('09)22.5→('12)79→('20)405억불 · 수출유망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마케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일괄지원체제 구축	지경부
	LED ◎목표: '08)10.4→('09)13→('12)40→('20)103.7억불 · 세계 최고수준의 LED 新수종 제품 개발 · 개도국, 선진국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추진	
	원전 ◎목표: '09) 1호기 수출, (중장기) 주요 수출국 도약 · 원전기술 조기 자립화('15년 →'12년) · 개도국(요르단· 터키 등) 맞춤형 수주전략	

분 야	육 성 전 략	담당부처
2. IT서비스·콘텐츠 시장 개척(게임·전자정부·WiBro)	◎목표: '08)16.1→('09)21.5→('12)56→('20)155억불 · 진출유망국을 선정, 정상외교 등을 활용한 민관 공동 마케팅 강화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3. 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목표: '08)12.5→('09)17→('12)30→('20)80억불 · 수출 유망 의료기기 조기 상품화 역량 집중 · 첨단병원 수출모델 발굴 및 의료수준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지경부 보건부
4.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목표: '08)44→('09)53→('12)100→('20)200억불 · 수출 대표품목 발굴 및 체계적 지원 · 수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5. 해외신도시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목표: '08)10→('09)13→('12)36→('20)100억불 · 도시개발 노하우가 있는 공기업(PM역할)과 민간기업(시공)간 역할분담을 통한 동반진출	국토부

\* 단, '08년 금액은 수출실적

□ (새로운 수출동력 선정기준) 이 분야 외에도 미래 수출을 책임질  
유망 품목들이 많이 있으나, 금번 회의시 논의된 품목들은,

- ① 기본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가 충분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 ② 산업의 특성상, 수출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정부 지원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 ③ 향후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출동력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적인 수출산업화 전략을 모색할 계획

□ (수출대책 이행점검계획) 또한 차질 없는 이행점검과 지속적인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출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 구성 : (위원장) 지경부 장관 / (위원) 각 부 차관 / 지자체, 무역협회·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품목별 수출담당기관 등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3월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46억불)를 실현하는 등 상  
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노고를 높이 평가함  
\* 주요경쟁국 수출증감률 비교('09.2, %) : (日)△50, (대만)△25, (中)△25.7, (韓)△18.3  
○ 특히, 원화강세 이후, 경기회복기에 대비해 지금의 위기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 확충 등 미래에 대비한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당부함 //

※ 첨부 : 1. 금번 대책에서 새로 추진되는 대책 (요약)  
2. 수출 진흥 대책. 끝.

**새로 추진되는 주요 대책 요약**

주요 대책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
<b>1.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애로 해소</b>	
<b>수출금융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대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신설(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사정이 어려운 조선·자동차·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기업업체 10,000개사에 대해 우선지원(3조원)</li> <li>-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대출이자 경감</li> </ul> </li> <li>■ 중견·대기업의 외상수출채권 현금화 지원을 위한 수출채권보험 신규 도입(4월)</li> <li>■ 수출내고보증의 지원가능 외상기간(120일→180일) 확대(4월)</li> <li>■ 수출대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시</li> <li>■ 기업의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수보-은행간 업무협약을 쏘시중은행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리 0.5%p↓, 수출신용보증료 0.3%p↓, 환가료 0.5%p↓</li> <li>* 우리·기업·국민은행 등 10개 은행과 보증업무협약 체결 완료</li> </ul> </li> <li>■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보증 및 대출을 실시한 일선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li> </ul>
<b>수출보험 지원대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남미·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업체별 수출보험 지원 한도 2배 확대</li> <li>■ 본지사금융보험 100% 위험 보상(현행 95%→변경 100%)</li> <li>■ 중소기업 전용보험과 연계, 해외마케팅보험료 대폭 할인(60%)</li> <li>■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①단기수출특례보험 및 ②자본재(선박 등) 수출보증보험 특례지원 실시</li> <li>①100만불 범위내 면책조건 완화 및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등</li> <li>②수주금액 전액지원 원칙, 1억불 이하 수주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li> <li>■ 은행창구를 통한 수출보험 접수 대행업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업 부수업무 지침」 개정(6월, 금융위)</li> </ul> </li> <li>■ 환변동보험 환수금 부담 경감 및 환리스크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추가발생 환수금 납부시기 최대 2년까지 유예</li> <li>- 환변동보험 운영 조기 정상화</li> </ul> </li> <li>■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수출보험 취급 임직원에 대한 한시적 면책 추진('09년말까지)</li> </ul>

주요 대책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
<b>2. 수출시장 개척 활동 지원</b>	
<b>해외마케팅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업체 해외전시회 참가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규모 확대 : ('09당초) 128회, 2,400개사 → ('09변경) 148회, 2,900개사</li> </ul> </li> <li>■ R&amp;D 파트너 매칭 지원센터 설치(8월,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등 선진 글로벌기업과의 공동 R&amp;D를 통한 중간재 수출 확대 추진</li> </ul> </li> </ul>
<b>국내 수출 상담 기회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개별 전시회에 대한 바이어 초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어 참가수 : ('08) 138,000명 → ('09) 150,000명</li> </ul> </li> <li>■ 유력바이어 발굴·매칭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어 유치·매칭 목표('09) : Global 700(대형바이어 300개사), Power 5000(중견바이어 2,000개사), Star 1000(신규바이어 400개사)</li> <li>- 연간 11,000건의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및 성약 지원</li> </ul> </li> <li>■ 해외 유력바이어(1,000개사) 초청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y Korea Autumn(9월, 서울)</li> </ul> </li> </ul>
<b>조달시장 개척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해외조달기관의 벤더등록업체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및 산하기관 벤더등록 업체수 : ('08)33개사 → ('09)47개사</li> <li>- 미국 연방정부 벤더등록 업체수 : ('08)21개사 → ('09)30개사</li> </ul> </li> <li>■ 조달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육군 조달전시회 참가('09.10), 한-EU 정부조달 진출 전략설명회(12월)</li> <li>- 日조달시장 개척단 파견(9월), 美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10월)</li> </ul> </li> <li>■ UN조달시장 진출지원센터 설치(5월, KOTRA 뉴욕 KBC)</li> </ul>
<b>시장 개척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진출 채널 강화를 위해 OKTA 한인 무역인을 KBC 지사화요원으로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KTA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개최(4월 광주, 10월 서울)</li> </ul> </li> <li>■ 중소기업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청년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개척요원 30명과 중소기업 40개사 매칭</li> <li>■ 현지교포 활용, KOTRA KBC의 수출중소기업 마케팅 인력(인턴) 보강('09년 약 100명)</li> </ul>

주요 대책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
<b>3. 무역부대비용 절감</b>	
바이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어 리스트 등 시장정보 통합제공 - 「마케팅 정보 통합제공시스템」 1차 구축(12월까지)</li> </ul>
수출제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대금 결제업무 순과정 원스톱 처리로 개선 - 은행·선사와 B/L 및 대금결제 서비스 연계 추진(10월)</li> <li>■ 항공운송장 전자 발급·유통서비스 시범 실시(11월)</li> <li>■ 안전·인증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신규 제공(12월)</li> </ul>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무역·물류·통관 정보망 구축(12월까지)</li> <li>■ 「중진공-물류업체(포워드)간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입 물류업무 대행서비스 제공(12월)</li> </ul>
<b>4.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b>	
국제사회에 “한국-자유무역” 브랜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20 정상회의(4.2일) 후속조치 강화</li> <li>■ WTO의 TPRB회의 및 TBT 등 분야별 위원회 등을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에 대한 다자간 공조 추진</li> <li>■ OECD 각료급 회의, WEF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 APEC 통상장관회의 등을 통해 자유무역 지지여론 확산</li> <li>■ 한·중·일 정상회담,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 한-미 산업협력위 등 양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조치 해소 노력</li> </ul>
FTA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활용매뉴얼 발간(10월) 및 교육</li> <li>■ 1만 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사업 추진('10년 예산반영)</li> </ul>
수입규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규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TBT 대응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li> <li>■ 각국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적법성 및 수출영향을 분석하여 수출업체에게 관련 정보 제공</li> <li>■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확대(1억원 → 10억원)</li> </ul>
수입원활화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상품전시회 개최 - 2009 수입상품전시회(5월, 서울) 40개국 160여개 업체 참여 예정</li> <li>■ 구매사절단 파견 : 중국(4회), 아시아(4회), 유럽(1회) 등</li> </ul>

# 경제위기 극복과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수출 진흥 대책

2009. 4. 16

관계부처합동

## 목 차

I. 대내외 수출여건 진단 .....	1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	1
2. 우리의 현 수출여건 진단 .....	2
II.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3
1. 최근 수출입 동향 .....	3
2. 2009년 수출입 재전망 .....	5
3. 新무역정책 목표 설정 .....	6
III. 2009년 수출 진흥 대책 .....	7
1.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애로 해소 .....	8
2. 수출시장 개척 활동 지원 .....	11
3. 무역부대비용 절감 .....	13
4.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	15
5. 중소기업 수출지원 시책 홍보 .....	18
IV.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육성 .....	19
1. 녹색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LED·원전) 수출 동력화 .....	20
2. IT서비스·콘텐츠 시장 개척 .....	26
3. 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	28
4.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	30
5. 해외신도시 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	32
V. 이행상황 점검 계획 .....	34

# 1. 대내외 수출여건 진단

##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주요변수	'03~'08 무역환경	'09년 이후 무역환경
경제성장	경제 호황 (연평균 4.6% 성장)	세계경제 침체 가속화 ('09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
세계교역	연평균 6.5% 교역 성장	2차 대전 이후 최대 감소 ( '09년 △9% 전망)
원자재가	가격 폭등	하향 안정세 전망
무역정책	FTA·자유무역기조 확산	보호무역주의 대두 ( '08.9~'09.2, 23개국 85건 조치, WTO)

- (경제성장) '09년에는 선진국(△3.5%)·개도국(1.5%) 동반침체에 따른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세계경제의 (-) 성장 가능성 증대
  - \* '09 세계경제전망(%) : (IMF)△1.0~△0.5 (세계은행)0.9 (Global Insight)△1.2
  - \* '09년 주요국 경제성장률(IMF, %) : (미)△2.6, (중)6.7, (일)△5.8, (EU)△3.2
- (미국) 시티, AIG 등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 및 자동차 빅3 파산가능성 잔존으로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 진행
  - \* 소비지출(%) : ('07)2.8 → ('08)0.2 / 산업생산(%) : ('07)1.7 → ('08)△1.8
- (일본) 엔고, 품목·국가 수출편중으로 경기악화 세계 최고수준
  - \* 수출품목비중 : 日(기계·자동차 34%) / 韓(조선·기계·자동차·반도체 35%)
  - \* 전체 수출중 70% 이내를 차지하는 국가수 : 日(11개국) / 韓(17개국)
- (유럽) 동유럽 디폴트 가능성 증대로 서유럽 침체 확산 우려
  - \* 산업생산(%) : ('07)3.5 → ('08)△1.7 / 소매판매 : ('07)0.9 → ('08)△1.3
- (중국) 경기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경기부양책의 효과 기대감
  - \* 중국경제성장률(%) (IMF, '09.1) : ('07) 13.0 → ('08) 9.0 → ('09<sup>q</sup>) 6.7
  - \* 4.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09년 9.5천억 위안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 등

- (세계교역) 세계 경기침체와 무역금융 경색으로 사상 유례 없는 감소 예상
  - \* '09.1월 수출증가율(%) : (美) △21.4, (日) △35.2, (中) △17.5, (獨) △26.6
  - \* '09년 세계교역량 전망(%) : (IMF, '09.1월 수정전망) △2.8, (WTO, '09.3) △9
- (유가·원자재가) OPEC 감산 및 경기회복 기대감 등 단기반등 요인도 있으나, 최근 하향 안정세 지속
  - \* '09년 유가전망(\$/B, Dubai기준) : (美 CERA) 51.88, (석유공사) 55
  - \* REUTER 지수 : ('09.1.30) 1,891 → (2.27) 1,893 → (3.31) 1,898 → (4.10) 1,972
- (무역정책) (비)관세장벽 강화, 수출보조금 지급, 자국업체 우선 용자지원 등 경제 회복수단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향
  - \* (인도) 철강관세 5% 인상, (러시아) 자동차관세 25~30%로 인상, (아르헨) 자동차부품·TV 수입허가제 실시, (미·EU) 자동차 등 자국업체 자금용자 등
  - \* (중) 우리나라 TPA 제품 반덤핑 조사개시(2.12)

## 2 우리의 현 수출여건 진단

- (수출시장)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수요 감소와 보호주의로 인해 新수출시장 진입은 물론 기존시장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
- (자금유동성) 국제 금융공조, 세계 각국의 구제금융 조치 등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는 여전히 지속
  - \* 외평채 가산금리(13yr, bp) : ('09.1.30) 331→(2.27) 340→(3.31) 363→(4.10) 357
  - \* CDS 프리미엄(5yr, bp) : ('09.1.30) 331→(2.27) 437→(3.31) 333→(4.10) 296
  - \* 어음부도율(%) : ('08.9) 0.02→('08.10) 0.03→('08.12) 0.04→('09.2) 0.04
- (원/달러 환율) 최근 약세가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향후 전망 불투명(변동폭 심화)
  - \* 원/달러 환율(月 증가) : ('09.1)1,379.5→(2)1,534.0→(3)1,383.5→(4.13)1,329.0
  - \* 원/달러 환율(月 최대-최소) : ('09.1)99.5→(2)155.5→(3)239.8→(4.1~13)70

## II.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1 최근 수출입 동향

□ '09.1~3월간 무역수지는 39억불 흑자 달성

- 수출은 △24.5% 감소한 750.7억불, 수입은 △32.9% 감소한 711.6억불
  - 다만, 수출을 원화 또는 물량기준으로 표시할 경우 오히려 증가 추세
    - \* 원화표시수출액(조원, %) : ('09.1) 28.6(△6)→(2월) 36.4(23.6)→(3월) 41.2(16.9)
    - \* 수출물량(십만톤, %) : ('08.12) 119.4(2.7)→('09.1) 98.9(△8.0)→(2월) 110.3(2.5)
- 3월 수출은 284억불(△21%), 수입은 238억불(△36%)로 46억불 내외의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실현
  - \* 환율효과, 원자재 도입단가 하락, 선박류 수출호조 지속 등이 주요인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9년			2008년	
	1월	2월	3월 <sup>P</sup>	1~3월 <sup>P</sup>	1~12월
수출(증가율)	212(△34.2)	255(△18.3)	284(△21.2)	751(△21.2)	4,224(13.7)
수입(증가율)	249(△31.5)	225(△30.9)	238(△36.0)	712(△32.9)	4,354(22.0)
무역수지	△36	29	46	39	△130

□ 일본, 대만 등 주요경쟁국과 비교시 ①환율상승, ②수출다변화, ③품목다양화 등으로 수출감소폭이 작고 흑자수준이 큰 편

< 주요 경쟁국의 수출 및 무역수지 추이 >

(단위 : 억달러, %)

국가	'08.12	'09.1	'09.2	특징	
일본	수출증가율	△35.0	△45.7	△49.4	자동차(15%)·기계류(19%) 등 의존도가 큰 품목수출이 크게 감소
	무역수지	△35	△106	9	
대만	수출증가율	△40.1	△42.9	△24.6	의존도가 높은 중국(26%)·홍콩(13%)·동남아(15%) 등 역내지역 수출이 크게 감소
	무역수지	18	34	16	
싱가폴	수출증가율	△27.4	△37.8	△23.7	상세 내역은 싱가포르 정부가 비공개
	무역수지	6	5	8	
중국	수출증가율	△2.8	△17.5	△25.7	원유·석탄 등 원자재 수출은 증가세, 의류·직물 등 소비재 수출감소폭이 작음
	무역수지	390	391	48	

□ 대부분의 수출주력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우위,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하반기 이후 본격 수출회복 전망)

<주요 업종별 수출시장 확대 동향>

업종	확대 동향
조선	- '03년 이후 수주·건조·수주잔량 3대지표 세계1위 지속 - 수주감소, 인도연기, 발주취소 등으로 유동성 악화 우려 - 전세계 18척 발주중 8척 수주('09.2월기준)
자동차	- 공격적 마케팅으로 최대시장인 美 시장점유율 급신장 * 한국의 美 시장점유율(%) : ('08) 5.1 → ('09.1) 7.1 → ('09.2) 7.6 - 소형차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 수출 회복전망
일반기계	- 일본과의 경쟁품목 수출증가(선박용 디젤엔진, 금형 등)
석유화학	- 중국의 내수부양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주요기업의 공장 가동률 평년수준 회복 : ('08.10~11) 70% → ('09.3) 100%
철강	- 엔고 영향으로 도요타, 파베스트(금형) 등 일본회사들이 부품·소재조달처를 한국기업으로 전환 추세
섬유	- 환율효과 및 바이어측 재고소진으로 인해 스판덱스, PSF 등 기능성 직물 중심으로 수주 증가 기대
휴대폰	- 1/4분기 시장 점유율 28% 이상의 사상 최고치 기록
반도체	- 키몬다(獨)·스팬션(美) 파산, 日·대만업체 감산 등으로 '09년 하반기부터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 세계시장점유율(%) : ('07) 11.2 → ('08) 9.3 → ('09 <sup>Q</sup> ) 11.5
디스플레이	-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영업실적이 양호하며 100% 가동률 회복 * '08.4/4 영업이익률(%) : (삼성) △8.3, (LGD) △6.9, (AUO) △44.3, (CMO) △45.5
가전	- 프리미엄 가전 세계시장 점유율 지속 상승 * 삼성 : LCD TV 시장점유율 (EU)26.2%, (美)26.0%로 1위, 양문형냉장고 (EU)37.4% 점유 * LG : 세탁기 20%대 점유(美)로 1위

## 2 2009년 수출입 재전망

□ ('08.12월, 당초전망) 貿易收支는 119억불 흑자 전망

: 수출 1.1% 증가한 4,267억불, 수입 △4.7% 감소한 4,148억불

□ (재전망 사유) 국내외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해 무역수지 재전망 불가피

주요 변수	당초 전망('08.12월)	현재 전망('09.4월)
세계 경제성장률(IMF)	2.2%	△0.5%~△1.0%
세계 교역물량	IMF 2.0%	IMF △2.8%, WTO △9.0%
연 평균 환율	₩1,100/\$~₩1,200/\$	₩1,200/\$~₩1,300/\$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3.0%	△2.0%
연 평균 원유 도입단가(석유공사)	\$60/bbl	\$55/bbl

\* 세계 교역량은 보호무역, 무역금융 경색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더 감소

□ (수정전망, '09.4월) 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한 모델 분석과 업종별 단체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수출입 재전망

- 재전망 결과, 무역수지는 150억불~200억불 수준의 흑자 전망
  - 수출 △10%대 감소한 3,650억불 내외,
  - 수입은 △20%대 감소한 3,475억불 내외를 기록할 전망
- 13대 품목('08년 수출비중 83.6%)의 업종별 수출전망을 취합한 결과, 수출은 전년대비 △13.5% 감소한 3,051억불 전망
  - 선박류(26.1%), 무선통신기기(0.2%) 등은 증가세 유지
  - 일반기계(5.9%→△14.4%), 자동차(△4.4%→△14.3%), 석유화학(△3.0%→△24.7%) 등 대부분 품목의 전망치 하락

## 3 新무역정책 목표 설정

### < 新 정책 목표 >

- ◆ 경제위기와 보호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최초로 세계 10대 수출강국 진입 및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 달성
- ◆ 200억 달러 수준의 무역흑자 실현

□ 수출 10강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점유율 3% 달성이 선결과제

- 우리나라는 '88년 최초로 점유율 2%대에 진입한 이후 20년째 2%~2.8%대를 유지하면서 11~13위 사이에서 정체상태 지속
-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침체에 공격적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여 2%대 트랩 탈피

\* 중국은 '95년 3%대 최초 진입 이후 10년만인 '05년 수출 3강 대열 합류

□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는 환율강세 상황에 대비한 최선의 대응책인 동시에 향후 경기회복시 비약적 수출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발판

### < 주요국 수출액 및 시장점유율 비교 >

	1973년			1988년			1995년			2008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71.4	13.7	독일	323	12.1	미국	584	11.5	독일	1,465	9.1
2	독일	67.6	12.9	미국	320	11.9	독일	510	10.0	중국	1,428	8.9
3	일본	37.0	7.1	일본	265	9.9	일본	444	8.7	미국	1,301	8.1
4	프랑스	36.7	7.0	프랑스	169	6.3	프랑스	289	5.7	일본	782	4.9
5	영국	31.0	5.9	영국	146	5.5	영국	239	4.7	네덜란드	634	3.9
6	캐나다	26.4	5.1	이태리	129	4.8	이태리	233	4.6	프랑스	609	3.8
7	네덜란드	24.1	4.6	캐나다	116	4.4	캐나다	190	3.7	이태리	540	3.3
8	벨-룩	22.4	4.3	네덜란드	103	3.9	네덜란드	177	3.5	벨기에	477	3.0
9	이태리	22.2	4.3	벨-룩	92	3.4	벨-룩	177	3.5	러시아	472	2.9
10	스웨덴	12.2	2.3	홍콩	63	2.4	홍콩	174	3.4	영국	458	2.8
	韓(30)	32	0.6	韓(11)	61	2.3	韓(12)	131	2.6	韓(12)	422	2.6

### Ⅲ. 2009년 수출 진흥 대책

#### < 그간의 대응 현황 >

#### 1. 추진경위

- 수출역량 극대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강국 실현전략」 및 「수출확대전략」 수립, 총력지원 추진(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수출위기 타개를 위한 「총력수출지원체제」 가동('08.12.26, 업무보고) 및 「수출입 동향·수출확대대책」 보고('09.2.4, VIP 방문)
- 「수출신용보증 추가 지원방안」 마련('09.2.11, 비상경제대책회의)

#### 2.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수출금융 애로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은 무역금융 확대('08.10월) : 0.75 → 1.5조원</li> <li>-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 ('08) 130 → ('09) 170조원</li> <li>- 수출신용보증 지원총액 확대 : ('08) 1.5 → ('09) 6조원</li> <li>-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보증지원 실시</li> <li>- 수출신용보증 취급 임직원 한시적 면책 추진('09년말까지)</li> </ul>
해외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케팅 지원예산 확대(245→320억원) 및 조기집행 추진</li> <li>- 대규모 수출상담회(Buy Korea 2009) 개최('09.1)</li> <li>- 중소기업의 신인도 제고를 위한 KOTRA 보증브랜드 도입</li> </ul>
무역부대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무역 인프라 1차 구축</li> <li>-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처리기간 단축 등 관련 애로 해소</li> </ul>
보호무역주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EU·인도 등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li> <li>- G-20 등 국제공조 실시</li> </ul>
정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경부·중기청·KOTRA·무협 등 기관별 정책정보 제공</li> <li>- 무역통상시책 설명회 등 지방중소기업 중심의 홍보 추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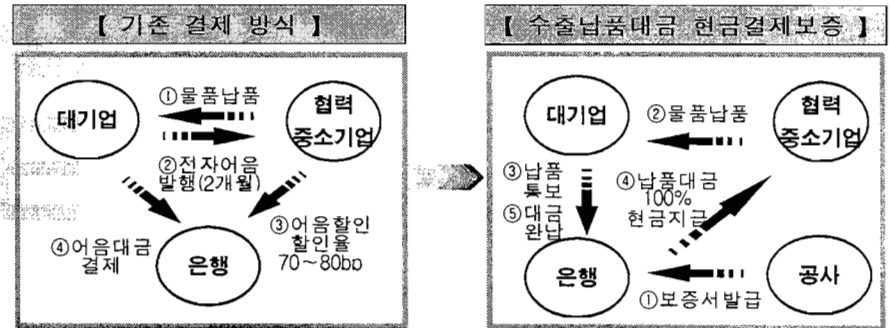
### 1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애로 해소

#### 가. 현장중심의 수출금융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 강화

현장 중심의 수출금융 제도개선,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금융지원 타겟팅 추진

-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할인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신설(수보)

- \* 지원대상 : 신용도 B급 이상, 회사채·주거래은행 신용등급 A<sup>-</sup> 이상
- \* 지원한도 : 중소협력업체의 납품실적 및 결제기간을 반영하여 산정



- \* (기존 결제방식) 제품 납품 후 대기업은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은행에서 어음할인(연이율 약 6.5%)을 통해 대금 회수
- \*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물품납품후 대기업이 수보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한 후 대기업에서 대금을 회수

- 자금사정이 어려운 조선·자동차·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납품업체 10,000개사에 대해 우선지원(3조원)
- 현금결제보증사업과 연계하여 수출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대출이자 경감을 통해 사업 참여 적극 유도

- \* 연간 1.5% 이자 절감(6% → 4.5%)

□ 수출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통한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지원

- 중견·대기업이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을 신규 도입('09.4)
  - \*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미결제하더라도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대금을 무조건 지급
  - \*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전년도 수출실적의 1/4범위내에서 지원
- 금융위기로 인해 외상결제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수출네고보증의 지원가능 외상기간을 120일 → 180일 확대('09.4)
  - \* 수출네고보증 : 수출대금을 외상 결제기간 전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
- 수출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대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지원 개시

□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대폭 확대

\* 수은 중소기업 지원규모 : ('08) 6.5조원 → ('09) 13.0조원

- 중소기업이 조선사 등 수출대기업에게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대출(2.5조원)」 도입(수은, '09.3)
- 은행에서 지방소재 수출중소기업이 대출시 수은이 대출채원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도입(수은, '09.3)
  - \* '09.3월 도입 후, 1차적으로 2,500억원 지원, 추가지원 적극 추진

□ 수보와 은행간 업무협약을 쏘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대출금리, 보증료 등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수수료 인하\*\* 추진

\* 우리·국민은행 등 10개 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완료('09.3) → 18개로 확대  
 \*\* 대출금리 0.5%p↓, 수출보증 보증료 0.3%p↓, 환가료 0.5%p↓

□ 자금공급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보증·대출을 실시한 일선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 「무역애로해소센터(지경부)」, 「무역금융애로상담센터(금감원)」를 통해 무역 금융애로 발굴·해소 및 현장 이행실적 점검 실시  
 \*\* '09년 지경부장관 표창 200개 예정, 수상자는 징계사유 발생시 처벌 수위 경감

나. 공세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제도 개선

- ◆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30조원 → 170조원)하여 전락 시장에 집중 배분하고, 한도소진시 추가확대 추진
- ◆ 손쉽고 편리하게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과감한 시장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보험 지원제도 개선

- 수출가능성은 높지만, 최근 리스크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남미·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업체별 지원한도 확대(2배)
- 본지사금융 확대\* 및 100% 리스크 담보(현행 95% → 변경 100%)
  - \* ('08) 9.3조원 → ('09) 15조원
- 중소기업 전용보험과 연계, 해외마케팅보험료 대폭 할인(60%)

□ 수출보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단기수출 특례보험\* 및 자본재(선박 등) 수출보증보험 특례지원\*\* 실시
  - \* 100만불 범위내 면책조건 완화 및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등을 통해 신속지원
  - \*\* 순주금액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1억불 이하 수주에 대해 심사기간 단축
- 은행 창구에서 수출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출보험 접수 대행 업무 실시(은행: 보험서류 수합 → 수보: 등급평가만 거쳐 신속 지원)
  - \* 은행업 부수업무 지침 개정(6.30, 금융위)

□ 환변동보험 환수금 부담 경감 및 환리스크 관리 지원 추진

- '09년 추가 발생 환수금의 납부시기를 최대 2년까지 유예
  - \* 유예대상 환수금액 : 3,700억원
- 원화강세에 대비하고, 환율급변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운영 조기 정상화
  - \* 지원한도 확대(전년도 수출실적 40% → 60%이내) 및 청약한도 제한 폐지 등

□ 과감한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수출보험 취급 임직원에 대한 한시적 면책 추진('09년말 까지)

## 2 수출시장 개척 활동 지원

- ◆ 경영악화로 마케팅 포기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 ◆ 해외마케팅 예산을 추가 확보('09년 522억 + 추경  $\alpha$ )하여 기존 시장 및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 기회를 확대 제공

### □ 개별기업의 해외에서의 수출 마케팅 기회 추가 확대

- 해외전시회 중 수출성과가 높은 전시회를 신규 발굴하여, 개별업체 참가지원한도(50% → 70%) 및 참가규모 확대
  - \* 신규 및 참가확대 : ('09당초)128회, 2,400개사 → ('09변경)148회, 2,900개사
- 수출주력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특별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로드쇼 등 다양한 마케팅 기회 제공

< 주요 전략시장별 마케팅 전략 >

지역	주요 전략
일본	- 엔고를 활용 소비재·농식품 on-off 유통망 및 프랜차이즈 등 집중공략 - 한일 정상회담('08.4)시 부품소재협력합의를 계기로 아웃소싱시장개척
중국	- 상해(자동차), 광저우(전자) 등 주요도시별 특화된 마케팅 추진 - 공동물류센터, 이등 KBC(무역관) 설치 등 마케팅 인프라 확대
미·EU	- 경기부양책 정보제공 강화, 자동차·IT 전략로드쇼, 특별기획전 등
중동	- 교육·의료·IT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확대
중남미	- 정상외교('08.11)성과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대형국책사업 참여

※ 별첨 - 2009년 지역별 해외마케팅 실행계획

### □ 해외전시회 참가가 어려운 업체를 위해 국내 수출상담 기회 확대

- 국내 개별 전시회에 바이어 초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력바이어 발굴·매칭 관리체계도 구축
  - \* 국내전시회 바이어 참가수 : ('08) 138,000명 → ('09) 150,000명
  - \* 바이어 유치·매칭 목표('09) : Global 700(대형바이어 300개사), Power 5000(중견바이어 2,000개사), Star 1000(신규바이어 400개사)
  - \* 신규 바이어를 찾아 연간 11,000건의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및 성약지원
- 해외 유력 바이어(1,000개사) 초청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추가 개최
  - \* Buy Korea Autumn('09.9, 서울) : 해외바이어 1,000명 초청(사이버상담 500명)

### □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제기구(UN, WB, ADB, UNESCO 등) 및 미국·EU·일본 등 조달시장 참여 적극 지원(KOTRA)

- (벤더등록) 컨설팅 지원을 통해 주요 해외조달기관의 벤더 등록업체를 대폭 확대
  - \* UN 및 산하기관 벤더등록 업체수: ('08) 33개사 → ('09) 47개사 (52% ↑)
  - \* 미국 연방정부 벤더등록 업체수: ('08) 21개사 → ('09) 30개사 (43% ↑)
- (마케팅) 조달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각국 조달관과의 상담기회 제공, 우수제품 홍보책자(현지어판) 발간·배포 등
  - \* 美육군 조달전시회 참가('09.10), 한-EU 정부조달 진출전략 설명회('09.12)
  - \* 일본 조달시장 개척단 파견('09.9), 美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09.10)
- 뉴욕 KBC 내에 「UN조달시장 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UN대표부와 협조를 통해 현지 지원을 강화('09.5)

### □ 미국 등 선진 글로벌기업과의 공동 R&D를 통한 중간재 수출 확대를 위해 「R&D 파트너 매칭 지원센터」 설치('09.8, KOTRA)

### □ OKTA 등 한인네트워크를 중소기업 시장개척의 첨병으로 활용

- 수출거점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OKTA(58개국, 5,200명)의 한인 무역인을 KBC 지사화 요원으로 위촉하여 현지진출 채널로 활용
    - \* OKTA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개최('09.4월 광주, '09.10월 서울)
  -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청년인력을 현지시장개척요원으로 활용('09년, 개척요원 30명-중소기업 40개사 매칭)
  - 현지교포를 활용, KOTRA KBC의 수출중소기업 마케팅 인력(인턴) 보강('09년 약 100명)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한 시장 개척 전문인력을 수출중소기업에게 공급(무역협회)
- \* ('08) 예산 33억원, 인력양성 600명 → ('09) 예산 99억원, 인력양성 1,600명

바이어 발굴, 대금 결제, 수출입물류, 관세·통관 등 무역프로세스 소과정에 대한 무역부대비용 절감 추진

#### □ (바이어 발굴) 중소기업의 바이어 발굴 비용 절감 지원

- 무역협회, KOTRA 등에서 운영중인 e-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하고, 각 기관에 분산된 바이어 리스트 등 시장정보 통합제공
  - 「u-TradeHub 마케팅 정보 통합제공시스템」 1차 구축('09.12월까지)
-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마케팅 활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비용절감효과가 높은 e-마켓플레이스 활용을 적극 유도
  - TradeKorea(무역협회), BuyKorea(KOTRA), GoBiz Korea(중진공) 이용업체수 확대 : ('08) 41,040개사 → ('09) 45,000개사

#### □ (수출제반업무) 전자무역을 활용, 무역처리기관과의 연계 확대

- 既구축한 「전자무역시스템」과 은행·선사 등의 전산망을 연결, 수출입대금 결제업무 소과정을 윈스톱 처리로 개선
  - 은행(78개)·선사(153개)와 B/L 및 대금결제 서비스 연계 추진('09.10월)
- 신속한 수출입물류 처리를 위해 해운화물에 국한된 운송장(B/L) 전자 발급·유통서비스를 항공화물(전체 운송건의 54%)까지 확대
  - AWB(Air Way Bill, 항공운송장) 발급·유통 서비스 시범 실시('09.11)
- 수출입 요건확인기관(국립검역원, 식약청 등)과 업무 연계범위를 확대, 안전·인증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신규 제공('09.12)
  - '09.4월 현재 총113개 수출입 요건확인기관 중 81개 기관과 연계 완료

#### < 전자무역서비스 활용 효과(예시) >

L 전자	○ 인건비, 서류처리비용 등 연간 300억원 비용 절감
S 전자	○ 통관부서 인력 50% 감소 : 89명→43명 ○ 무역업무처리 기간 및 절차 단축(25일→5일, 53단계→17단계)
A 중소기업	○ 무역부대비용 절감 : 2,900만원→916만원 ○ 소요시간 단축 : 12시간→30분

#### □ (수출입물류) 수출입 물류 지원서비스 개선

- 지경부(수출입물류)·국토부(내륙물류)·관세청(통관) 합동으로 통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수출업체에게 실시간 물류정보 제공
  - 차세대 전자무역시스템 1차 사업을 통해 통합물류망 구축('09.12월까지)
- 「중진공-물류업체(포워드)간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출입 물류업무 대행서비스 제공(중기청)

#### □ (관세) 환급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특례지원 추진

- 원재료 수입후 수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별 특성을 고려, 관세 환급기한 연장 검토(재정부)
  - (例)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수출용 원재료 수입후 2년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를 관세환급 대상으로 규정
    - 원자력 기자재는 원재료 수입후 수출시까지 4~5년이 소요되어 환급 불가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 수출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6월씩 2회) 및 분할납부 허용(관세청)
  - 관세납부 기한 연장시 연간 351억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상

#### □ (분쟁중재) 소송보다 시간·비용이 절약되는 중재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KOTRA·지역상의 합동설명회 등 홍보·교육 강화

- 중재 이용시 분쟁해결기간이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평균 13.9개월 단축
- 중재 및 알선 이용건수 확대 : ('08 실적) 1,047건 → ('09 목표) 1,200건

국제사회에서 다자·양자간 공조를 강화하고 FTA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 수입규제 대응활동 적극 지원

- 금번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한국=자유 무역” 국가브랜드 확립
  - G-20 정상회의(4.2) 후속조치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동향 파악 및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설치 자제에 적극 공조
    - \* G-20 정상회의시 각국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합의된 스탠드스틸(새로운 장벽 설치 자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 조치를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WTO의 TPRB 회의(수시) 및 TBT 등 분야별 위원회(수시) 등을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에 대한 다자간 공조 추진
    - \* 보호무역 조치의 WTO 통보 및 분기별 위반사항 이행점검 활동에 적극 참여
  - OECD 각료급 회의(6월), WEF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6월), APEC 통상장관회의(7월)등을 통해 보호무역조치 대응 및 자유무역 지지여론 확산
- 양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6월), 한·중·일 정상회담(7월~9월) 등을 활용, 보호주의로 타격을 받는 아시아국가와의 국제공조\* 협의
    - \* 보호조치 추진국에 대한 문제제기, WTO 공동제소 검토 등
  -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채널 및 산업·투자협력위 등 양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조치 해소 노력
    - \* 한·중 투자협력위('09.6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09.10~11월),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09.9~10월), 한-미 산업협력위('09.하반기) 등

- FTA 체결확대 및 FTA 활용지원을 통해 무역자유화 확산
  - 既타결된 美·印와의 FTA를 조속히 비준·발효하여 양자간 무역자유화 확대 및 FTA내 무역구제 협력조치 활용
    - \* 우리나라 대세계 교역보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1.3~1.8배 더 증가
  - FTA 활용매뉴얼 발간 및 교육\*,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기업의 FTA 활용확대를 통한 수출효과 극대화
    - \* 주요 업종별 특혜원산지 활용 매뉴얼 발간·배포 추진('09.10월말)
    - \*\* 1만 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사업 추진('10년 예산반영)
- 기술규제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대비한 신속대응체제 구축
  - 「기술규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별 TBT 실무 위원회를 통해 입수된 정보의 효과적 분석/대응체제 수립
    - \* 기업현지방, KOTRA, 재외공관 등을 활용,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정보 조기입수
    - \*\* WTO/TBT 통보 기술규제 건수 : ('08.1-2월) 204건 → ('09.1-2월) 299건 (47% 증가)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TBT 대응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 해외 기술규제의 세부 영향분석 및 기업별 대응방안 제시 추진
- 해외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예상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
  - 보호무역조치가 집중되는 자동차·철강 등 업종별로 각국 조치의 적법성 및 수출영향 분석,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
  -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활동(국내의 전문가 고용, 사절단 파견 등) 지원강화를 위해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확대(1억원 → 10억원)
-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원활화 대책도 병행 추진
  -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부터 수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상품전시회\*, 구매사절단 파견\*\* 등 추진
    - \* 2009 수입상품전시회('09.5월, 서울) : 40개국 160여개 업체 참여 예정
    - \*\* '09년중 중국(4회), 아세안 등 아시아지역(4회), 유럽(1회) 등 파견 추진

**참 고**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세부현황**

유 형	조 치	
수입제한	수입허가	· (인도) 일부 철강제품 및 자동차부품 수입허가제 실시 · (인니) 식료품·완구·전자제품·신발·의류 등 사전 수입허가제 및 수입항 제한, 선적 前 검사 의무화 · (아르헨) 섬유·철강·타이어 등 수입허가제 실시
	수입규제 (반덤핑/세이프가드)	· (인도) 무스프탈산 등 6개 제품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필리핀) 한국산 철강제 각봉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 (일본) 밀가루, 곤약 등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중국) 한국·태국산 TPA 반덤핑 조사개시 · (EU)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 (미국) 중국산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관세인상	· (인도) 철강제품 5%, 대두유 20% 관세부과 · (러시아) 승용차, 트럭 관세 25~30%로 인상 · (베트남) 철강제품 5~12%로 인상 · (터키) 면직사·철강제품·밀가루 등 관세인상 · (인니) 석유화학·철강·전자부품 관세인상 · (우크라이나) 한시적 추가관세 13% 부과
	기술규제	· (인니) 열연재, 갈바륨 철강제품에 대한 SNI 강제인증 실시 · (인도) 17개 철강재/철강제품 강제인증 실시 · (말련) 어린이 완구의 안전기준 강화 · (미국) 12세 이하 어린이용품 안전인증도입, 적합성인증의무화 · (에콰도르) 공산품(타이어, 철강,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적합성인증서 첨부 · (EU) 타이어 소음제한 인증마크 부착 · (GCC) 제조·수입제품의 안전기준, PL법, 적합성평가도입 · (태국) 수입제품에 대한 제품인증기준 개정·강화
수출보조	· (EU) 낙농유제품 수출보조금 도입 · (중국) 섬유·의류, 신발,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인상 · (인도) 섬유·가죽제품에 대한 수출 인센티브 제공	

\* 자료 : WTO TPRB 보고서('09.4월), 기술표준원 ('08.9월에서 '09.3월간 취해진 조치 중심이며, WTO에서는 상기 조치들이 보호주의 목적으로 취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함)

**5**    **중소기업 수출지원 시책 홍보**

□ 수출지원 정보를 총망라한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수출 지원기관(지자체, 공공·민간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원 서비스를 총망라한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 지자체 및 수출지원기관에 수출지원정보 안내요원을 지정, 지원시책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안내책자 발간 등 추진

□ 수출기업 및 일반국민 대상, 지경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 합동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 수출진흥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수출지원시책에 대한 지자체 합동 순회 설명회, TV 공익광고, 온라인 배너설치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 홍보 추진

<수출 품 조성을 위한 홍보 추진계획(안)>

구분	홍보방안 및 내용	시기
온라인 홍보	① 수출지원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지원시책 통합 제공 포털 구축	7월
	② 수출로 위기를 극복한 CEO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띄우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의 이메일 뉴스레터	연중 수시
	③ 통합포털 허브 이미지를 부처·유관기관 사이트에 배너로 게재	4월
	④ 수출을 테마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지식In, 블로그 등 확대	4월
오프라인 홍보	① 지방수출기업대상 수출지원기관 합동 설명회	연중 수시
	② 수출동향 점검 및 애로요인 파악, 수출정책 홍보 등	
	③ 기고/칼럼/인터뷰(주요 주간지 수출 기획특집 등)	
	④ 대국민 수출정책 홍보효과가 큰 지하철 TV 공익광고 등 적극 활용	
홍보물 제작	①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사례집 등을 설명한 핸드 가이드북 제작·배포	5월
	②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수출로 어려움을 이겨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영상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4-5월
	③ 수출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한 스크린 세이버 제작·배포	5월

## IV.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육성

### < 추진 방향 >

- ◆ 원화강세 이후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차세대 新수출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 ◆ 특히, 수출산업화 초기단계에 있고,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분야에 대하여 R&D, 마케팅,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수출잠재력을 확충

### 육성 과제 및 기본전략

분 야	기 본 전략	담당 부처	
1. 녹색성장산업 수출동력화	신재생	· 수출유망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마케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일괄지원체제 구축	지경부
	LED	· 세계 최고수준의 LED 新수종 제품 개발 · 선진국 및 개도국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원전	· 원전기술 자립화 조기 완료('15년→'12년) · 개도국(요르단·터키 등) 맞춤형 수주전략	
2. IT서비스 시장 개척 (게임·전자정부·WBro)	· 진출유망국을 선정, 정상외교 등을 활용한 민관 공동 마케팅 강화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3. 의료산업 수출활성화	· 수출 유망 의료기기 조기 상품화 역량 집중 · 첨단병원 수출모델 발굴 및 의료수준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지경부 보건부	
4.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 수출 대표품목 발굴 및 집중 지원 · 수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5. 해외신도시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 도시개발 노하우가 있는 공기업(PM역할)과 민간기업(시공)간 역할분담을 통한 동반진출	국토부	

## 1 녹색성장산업 수출 동력화

### 가. 신재생 에너지 수출산업화

#### ①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어 시장전망이 매우 밝은 분야
  - \* 청정에너지 시장전망(Clean Edge, 억불) : (태양광) '07) 203 → ('17) 740, (풍력) '07) 301 → ('17) 834, (연료전지) '07)15 → ('17)160
- 세계 주요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급속 성장에 맞추어 생산능력 및 투자규모 확대
  - \* 태양광 등 8개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규모는 '30년 7조불로 예측(美 CERA)

#### ② 우리나라의 현 위상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부분 초기산업단계에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수출유망분야의 성장동력화 가능성이 큼
  - \*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중공업·조선(풍력) 등 기존 산업과 핵심기술 공유

#### ③ 수출 추진현황 및 목표

- 아직까지 절대규모는 미미하나, 수출실적 등에 있어 지속적 증가세 시현('07, 5.9억불 → '08, 12.8억불)
- '09년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를 중심으로, 미주, EU 등으로 수출지역을 확대하면서 전년대비 72% 증가한 약 22억달러 계획

#### < 품목별 수출실적 및 목표 >

품목	'08년 실적	'09년 목표	'12년 목표	'20년 목표
태양광	6.3억불	15억불	64억불	292억불
풍력	6.4억불	7억불	14억불	103억불
연료전지	7.5백만불	50백만불	97.6백만불	10억불

#### 4 수출추진전략

유망 수출전략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포괄하는 일괄 지원체계 구축

##### □ (기술개발) 수출유망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R&D 집중 지원

-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중점 지원
  - \* '09.6월중 전략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선정절차를 마무리
  - \* (예) 박막 태양전지 Cell, 풍력발전기 핵심부품(증속기·베어링 등) 등
- 개발된 국산제품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고 초기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현지 실증을 지원(지금까지 국내실증만 지원)

##### □ (수출마케팅) 수출주력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서비스 제공

- 1억불 이상 수출기업을 '12년까지 15개 육성(현재 4개)
  - \* 매년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하여 신재생에너지 Front-Runner로 선정하고 정부포상 실시
- 수출 주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
  - \* 국제 전문전시회에 '신재생에너지 한국관(Renewable Korea (가칭))'을 설치하는 방안 추진 (통일된 로고 및 Identity를 디자인·적용)

##### □ (프로젝트 파이낸싱) 풍력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수출지원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펀드」(2,000억원 규모)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수출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 해외 수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 중점지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 2.5%, 현재 국내만 지원)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금융지원 확대(수은)
  - \* 수은 녹색성장산업 지원규모 : ('08) 2,500억원 → ('09) 1조원
  - \* 탄소펀드 등 설립시 수은 참여를 위한 수은법 개정('09.1) 및 시행령 개정 추진('09.4), 녹색성장 관련 공공탄소펀드 설립('09년중) 및 녹색성장펀드 참여('09.6)

#### 나. LED 수출산업화

#####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 세계 LED시장(기구포함)은 '08년 214억불 규모이나, 성능향상과 함께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
  - \* ('07) 휴대폰용 등 저휘도 시장 → ('08 이후) TV, 차량용 등 고휘도 시장
- 향후 LCD BLU(Back Light Unit), 자동차 및 조명용 LED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LED시장의 확대를 주도할 전망
  - \* 시장성장률('08~'12, 한국광기술원, %)
    - : (조명) 56, (LCD BLU) 35, (차량) 26, (의료·농수산) 25

##### 2 우리나라의 현 위상

- 美·日·獨 등 3대 강국에 비해 원천기술개발이 한발 늦었으나
  -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IT 기술력과 집중적인 R&D 투자로 선진국 대비 80% 수준까지 도달
- 엄격한 기술이전 통제를 받는 chip 제조기술까지 독자 개발함으로써 선진국과 원천기술 경쟁이 가능
  - \* (예) 교류에서 직접 구동하는 "Acriche" 칩 개발, 세계 최초 LED TV 상용화 등

##### 3 수출 추진현황 및 목표

- (현황) '08년 수출은 10.4억불로('07년 대비 18%↑) 칩·패키징과 함께 어플리케이션도 빠르게 성장하여 年 20% 이상 확대 전망
- (목표) 해외 대규모 바이어 확보를 통해 '09년 수출 13억불 달성

< 수출실적 및 목표 >

품목	'08년 실적	'09년 목표	'12년 목표	'20년 목표
LED	10.4억불	13억불	40억불	103.7억불

#### 4 수출추진전략

- ◆ 세계 최고수준의 LED 성능기술 확보, 新수종 제품 개발
- ◆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마련 및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 □ (R&D) 분야별 타겟기술 집중투자로 “新핵심원천기술” 선점

- LED칩 성능을 '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0lm/W급으로 개발
- 가전, 자동차·조선, 의료기기 등 LED 응용분야별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新수종 제품 개발 및 수출산업화 추진
- \* 최근 삼성은 LED TV를 출시하여 출시 2주만에 7,000대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유럽·미국 시장 수출물량도 확대되고 있음

#### □ (마케팅) 선진국→대형 프로젝트 발굴, 개도국→CDM사업 연계

- (선진국) 유럽, 일본 등 대형 LED 보급 프로젝트 발굴, 국내 업체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및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 홍콩국제조명전시회(10.27~30), \*\* 해외바이어 60개사 초청 상담회 개최(5.20)
- (개도국)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배출권 확보와 연계하는 CDM사업화를 통해 개도국 시장 공략
-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CERs)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 □ (기업육성) '12년까지 1억불 이상 수출기업 육성(3개→18개)

- 신성장동력 펀드를 통해 LED 수출기업의 제품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LED 제품별 KS규격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국내 기업 제품의 경쟁력 제고

#### 다 원자력 발전 플랜트 수출 시장 개척

####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화석 에너지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을 주목하면서 원전 르네상스 도래
- \* '30년까지 약 300기 신규건설로 약 900조원의 시장형성 전망 ('08. IAEA)
- 세계 원전시장은 美, 佛, 露, 加가 주도해 왔고, 최근 일본도 주요기업과 인수·제휴를 통해 시장진출 추진

< 주요 원전기업 개요 >

	웨스팅하우스(美)	GE(美)	AREVA(佛)	AEP(露)	AECL(加)
주요상품	AP-1000	ABWR	EPR-1600	VVER	ACR-1000
시장점유율	28%	20%	24%	10%	5%
최근동향	도시바가 인수('06.10)	히타치와 제휴('07.5)	미쓰비시와 MOJ('06.10)	-	-

#### 2 우리나라의 현 위상

- '90년 이후 지속적인 원전 준공(총 11기)을 통해 세계적으로 입증된 최고 수준의 건설 및 운영기술 확보
- \* '07년 원전이용률(%): 韓(93.4, '08), 美(91.0), 佛(76.0), 加(66.7), 日(63.9)
- 그러나, 일부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 미흡한 인지도 등으로 플랜트 수출에 있어 美·佛 등 주요 원전업체와 경쟁에 애로

#### 3 수출추진현황 및 목표

- (현황) 원전 플랜트 수출 성공사례는 아직 없음
- \* 기자재·용역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두중, KOPEC, 한수원 등은 '93년부터 '08.12월 현재까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약 18억불 수출
- (목표) '09년 1호기 최초 수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천 기술확보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원전수출국 도약

#### 4 수출추진전략

- ◆ 원전기술 조기 자립화('12년)로 해외진출의 기술적 애로해소
- ◆ UAE, 요르단, 터키 등 개도국에 맞춤형 수주역량 집중투입

□ 독자적 원전수출 능력 조기 확보를 위해 미자립기술 자립 및 신형 원자로(APR+) 개발 '12년까지 조기 완료(당초 '15년 → 변경 '12년)  
 \* 미자립 기술 :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제어계측설비(MMIS), 핵심설계코드

□ 진출이 유망한 개도국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수주전략 시행

- (UAE)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강조하여 터키사업 수주
  -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기자재 적기 공급 능력 및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등 분야별 종합공급능력 차별화된 장점 부각
- (요르단) 양국 정부간 원전협정 체결을 통해 계약 유도
  - 사업방식, 재원조달 등 기본사항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정부간 협정 체결 추진
- (터키) 제2원전(시놉)에 대하여 계약 추진
  - 제1원전 사업에 비해 단기간내 경제적인 원전건설이 가능한 정부-민간 합작투자방식
- (중국) 신규 원전건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 정부 및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틈새시장 개척
- (미·EU) 단기적으로 기자재·용역 등 단위 기술 수출 확대
  - 중장기적으로 주요 원전공급사와의 전략적 협력 및 한국형 원전의 설계 개선을 통한 진출 방안 모색

□ 한국형 원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 고위급 채널, KOTRA 등 민간 기구를 활용한 민관 공동 세일즈 강화

## 2 IT서비스·콘텐츠 시장 개척

###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 (게임) '10년까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年 5%이상 성장 전망
  - \* 세계시장전망(역률) : ('08) 1,068 → ('10) 1,178 (亞 36%, 美 32%, 유럽 31%)
- (전자정부) '12년까지 연평균 5% 이상 성장 전망
  - \* 전자정부 등 IT서비스시장 전망%(Gartner) : ('09)△0.2, (~'12) 연평균 5.6
- (WiBro) '10년이후 유럽·북미 중심으로 급속한 팽창 전망
  - \* WiBro 시장 전망 : ('08) 86만명 → ('13) 4,246만명 (연평균 118%)

### 2 우리나라의 현 위상

- (게임) 한국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세계 1위이며,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은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을 세계 3위로 평가
- (전자정부) 국가정보화사업을 통해 세계 6위의 경쟁력 보유
  - \* '08 전자정부 준비지수(UN) : 1위(스웨덴), 2위(덴마크), 4위(미국), 6위(한국), 11위(일본)
- (WiBro) 최초 상용화('06)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경험 입증
  - \* S전자 보유 WiBro관련 특허 : 전체 439개 기술 중 95개 보유(전체의 22%)

### 3 수출 추진현황 및 목표

- (게임) 해외 수출거점 확보 등을 통해 '08년 수출 10억불 달성
  -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중국사무소, 미·중·일 해외문화원내 게임홍보관 운영 등
- (전자정부) CIS, 중남미, 동남아 지역 대상 해외진출 추진중
  - \* 우즈베키스탄(GIS, 특허, 조달), 베트남(교통카드), 페루(전자문서) 등
- (WiBro) 유럽·미국 등 20개국에 국산 WiBro 수출추진중
  - \* S전자는 미국, 브라질 등 8개국 10개 통신사업자와 상용장비 공급계약 체결

< 품목별 수출실적 및 목표 >

품목	'08년 실적	'09년 목표	'12년 목표	'20년 목표
게임	10억불	15억불	36억불	100억불
전자정부	6.1억불	6.5억불	10억불	25억불
WiBro	-	-	10억불	30억불

#### 4 수출추진전략

진출유망국을 선정하여 정부간 산업협력 채널 등을 통해 새로운 IT·콘텐츠 수요를 발굴하고 민·관 공동 세일즈 강화

##### □ IT서비스 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 추진

- (게임)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EU와 공동위를 구성·운영 하여, 게임 관련 정책정보 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 \* 중국 문화부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MOU 既체결('08.12)
  - \* 게임을 등급분류 등 정책 교류를 위한 EU 정보통신부와의 MOU 체결('09.6)
-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시범사업 등 개도국 전자 정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수주성공률 제고('09, 15과제, 30억원)
- (WiBro) 중남미 등 정부 간 협력 MOU체결, 도입 유망국가 정부 대상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장진출 기반 조성

##### □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수출마케팅 지원 추진

- (게임) 러시아 시장개척단 파견('09.6), 독일 전시회 내 수출상담회 ('09.8), 미국 내 게임선블카드\* 유통 등 권역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 \* 미국 내 주요 온라인 결제수단인 선블카드를 제작하고 마케팅 지원('09.9)
- (전자정부) 동남아·중남미 등 전략 수출지역에 민·관 수주 지원단 파견 및 개도국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추진
  - \* 민·관 수주지원단 2회 파견('09.6, 동남아, '09.10 중남미)
  - \* 베트남 등 30개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 구축사례 시찰 지원('09.12)
- (WiBro) 정상외교 및 대형 국제행사 등과 연계한 로드쇼 개최 및 국내업체 WiBro 장비 및 서비스 시연 지원 추진
  - \* 남미 IT 수출사절단 파견('09.3, 콜롬비아·페루·브라질) : WiBro·DMB 등 시연, 유력 통신사업자와의 상담회 개최

### 3 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 (의료기기) 고령화, 웰빙수요 확대, U-Health Care 수요확대 등으로 연평균 6% 이상 지속 성장 전망
  - \* 의료기기 시장전망(Espicom, 억불) : ('07) 1,940 → ('11) 2,461 → ('12) 2,610
- (첨단병원) 자원부국(아부다비·쿠웨이트) 및 신흥국(카자흐·인니)의 보건의료 현대화 수요 급증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기회 확대

#### 2 우리나라의 현 위상

- (의료기기) 선진국의 60~70% 수준이나, IT·BT 기술 우위로 초음파 진단, 의료영상 정보처리 등 일부분야는 세계적 수준
  - \* 의료기기 정부 R&D투자(억원) : ('04) 313 → ('08) 498 (Siemens의 1/20 수준)
- (첨단병원) 세계적 수준의 전문의료진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UAE 척추전문병원 등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가속화

#### 3 수출 추진현황 및 목표

- (현황) 의료기기는 X선기기 등 가격 경쟁우위 품목의 호조로 증가추세이며, 첨단병원도 중국·몽골 등에 활발히 진출 중
  - \* 병원 해외진출 현황(기관수) : (중국) 17, (베트남) 2, (미국) 10, (몽골) 4, (일본) 1
- (목표) 중앙아시아 등 신흥자원부국 대상 시장개척 지원활동 강화로 17억불 달성 목표

< 품목별 수출실적 및 목표 >

품목	'08년 실적	'09년 목표	'12년 목표	'20년 목표
의료기기	11.5억불	15억불	20억불	60억불
첨단병원	1억불	2억불	10억불	20억불

#### 4 수출추진전략

- ◆ 수출유망 의료기기 선정 및 조기상품화 역량 강화에 집중
- ◆ 첨단병원 해외사업 모델 발굴 및 국내 의료수준에 대한 홍보강화

#### □ IT·BT 융복합 첨단의료기기 집중 개발

- R&D 단계부터 수요자인 병원의 참여를 통해 임상 및 시험 인증을 강화하여 최첨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
  -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취약한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 등 R&D 전주기적 지원('09~'12)
- 「의료장비 + 병원건설 + 의료서비스」 패키지형 진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출용 디지털병원 IT 솔루션” 개발
  - \* 수출용 디지털병원의 표준이 될 400베드 내외의 2~3개 시범병원 운영
  - \* 디지털병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전담할 민간기구 설립 추진('09.12)

#### □ 신성장동력펀드 및 ODA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 수출지원

- 「바이오메디컬펀드(1,000억원)」를 통해 기업의 R&D성과 수출 사업화 및 해외진출 프로젝트 등 지원
  - \* 기업당 50~200억원 투자(총 15~20개 기업)
- 개도국 개발원조 자금(EDCF, 무상원조) 활용 및 신흥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를 활용한 의료장비 및 첨단병원의 해외진출 추진

#### □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강화

- 「의료산업 마케팅 지원센터(KOTRA, '08.6월 설립)」 본격 가동 및 의료산업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병원 홍보
  - 미국·EU 등 의료전문가를 기업도우미로 활용하여 수출유망 기업에 대한 “선진국 진출 대비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국내 병원의 우수 역량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로드쇼 개최” 및 의료산업 분야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 4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 세계 식품시장 및 교역규모는 지속 증가 전망
  -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10년 4.3조불 규모로 증가할 전망(Datamonitor, '06)
  - \* '05년 식품교역규모는 약 13,265억불로 '90년 대비 2배이상 증가(FAO)
-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웰빙 선호로 건강식품 및 제3세계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
  - \* '05년 기준 美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41억불로 '00년 대비 80%성장
  - \* '08년 에스닉 푸드(제3세계 음식) 매장 매출액 : 487.5억불(세계 외식산업의 12.4%)

##### 2 우리나라의 현 위상

- (농수산물) 품질경쟁력은 있으나 높은 생산비·단순가공으로 수출경쟁력이 낮고,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투자여력 부족
  - \* 5백만불 이상 수출업체는 13개, 대부분이 1백만불 미만 수출('07)
- (가공식품) 내수 위주의 매출구조 형성, 수출 新상품 개발 투자 부족 등 전반적인 수출구조 취약
- (대표 수출품) 김치·인삼 등 대표 식품이 있으나, 와인(佛), 키위(뉴질랜드), 스시(일본)와 같은 대외 인지도를 갖추지 못함

##### 3 수출 추진현황 및 목표

- '09.1~3월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한 9.8억불 기록(잠정)
- 주요 수출국의 식품 수입감소로 금년 53억불 수출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한식세계화 등을 활용하여 목표 달성에 총력
  - \* '09.3월 주요국 수출액(증감율)(백만불, %) : 【일본】 308(7.4), 【중국】 97(△19.3), 【미국】 87(△0.6), 【러시아】 37(△41.2), 【아세안】 105(△2.3), 【EU】 39(7.9)

< 수출실적 및 목표 >

품목	'08년 실적	'09년 목표	'12년 목표	'20년 목표
농식품	44억불	53억불	100억불	200억불

#### 4 수출추진전략

대표 수출품목 발굴하여 집중지원하고, 수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우리 식품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 □ 한식 등 국산 식재료 세계화를 위한 대표 품목 육성

- 해외 외식업체에 한식메뉴(비빔밥·불고기 등) 보급, 조리사 파견 및 식재료 수출을 추진하고 한식 규격화 및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 한식 등 식재료 수출 본격 추진을 위해 20억원 예산 신규 편성('09)
- 주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비(조직당 1.5억원) 및 수출 물류비 지원(15%) 등을 지원하여 수출선도조직\* 본격 육성
  -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를 결합한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이 가능한 수출조직 → '08.12월 파프리카, 배, 김치 등 10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13개 조직

##### □ 세계적 식품안전 관심 증대에 대응, 수출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잔류 농약검사, 위생 점검 등 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안전 지킴이 제도를 운영(13명),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 채소·과실류 수출단지 중 우수단지 3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 EU 사무국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안전 인증기관 신청('09.2) 등 수출농산물에 대한 Global GAP 안전인증 추진
  - '09.12월경 농수산물유통공사의 Global GAP 인증 가능 예상

##### □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30개 재외공관과 연계한 농식품 홍보행사 추진 및 주재국 바이어 초청사업 확대 등 각국 주류계층에 대한 홍보 강화
  - 30개 재외공관 : 일본(3), 중화권(5), 동남아(4), 북미(4), 중남미(3), 유럽(8), 기타(3)
- 문화부(해외문화원), KOTRA(해외물류기지), 한식연(R&D 지원) 등 수출유관기관의 국내외 인프라를 농식품 수출에 적극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무역협회와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MOU 체결('09.3)

#### 5 해외신도시 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 경제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9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주택 및 신도시 건설사업 증가 추세
- 경제위기 영향으로 아시아권 개발은 위축되고 있으나,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은 풍부한 재정을 기반으로 지속 추진

지역	국가별 신도시 사업 동향
중 동	· 사우디(5대 신도시), 쿠웨이트, 요르단(암만), 이란(2개), 카타르(루사일) 등 주거 중심 신도시 건설 · UAE(아부다비) : U-City, 無탄소 도시 등 IT와 친환경성을 강조한 개념 도시건설 추진(인구9만의 Masdar City ('08~'15년, 240억불))
C I S	· 러시아(14개소), 카자흐(알마티, 아스타나 주거단지) 등 · 아제르바이잔은 행정 신도시 건설 추진(토공이 PM 참여)
아시아	· 베트남(하노이 등), 캄보디아(주거단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활발 · 인도는 구도심 개발을 통해 50개 위성도시 건설 추진
아프리카	· 알제리(14개소) 등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 추진

\* 신도시 : 건축, 토목, 산업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종합 건설사업

##### 2 우리나라의 현 위상

- 국내 신도시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89년부터 아시아 및 중동, 아프리카 등지 도시개발 사업 진출
-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건축공사, 엔지니어링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대규모 종합개발사업 진출은 미흡
  - 주요사업 :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등 3개 사업 47억불, 아제르바이잔 행정 도시 PM(24백만유로), 캄보디아 캄코시티, 카자흐 알마티 등

< 수주실적 및 목표 >

품목	'08년 실적	'09년 목표	'12년 목표	'20년 목표
신도시	10억불	⇒ 13억불	⇒ 36억불	⇒ 100억불

### 3 수출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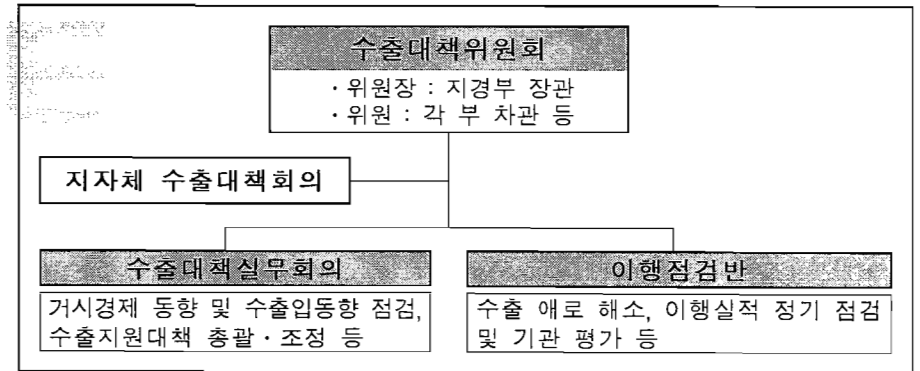
- ◆ 지역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정립
- ◆ 정부간 협력사업 발굴, 공공·민간부문 동반진출 활성화

- 규모별(신도시형, 주택단지형 등) 특성을 반영한 신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지원 강구
  - (소규모 주택단지형) 개별기업별 진출이 가능, 해외공사 보증 지원, 투자개발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구
  - (뉴타운형) 설계, 시공(주택, SOC 등 분야별), PM 등 분야별 우수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인프라 펀드\* 등 재원조달 지원
    - \* 정부·공공기관 10%+기관투자자 90%, '09.9월 조성('12년까지 2조원)
  - (대규모 종합개발형) 인프라 분야 공기업과 동반 진출\*을 통한 수주 경쟁력 제고, 정부간 MOU 체결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
    - \* 토공, 주공, 도공, 수공은 해외진출가능, 인천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은 제도보완 필요(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09.6 예정)
- 해외수주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민관합동 신도시건설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현지 로드쇼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마케팅 강화
  - 개도국의 한국형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무상지원하고, EDCF를 통해 후속 시공사업시 아국기업 진출을 지원
  - 도시개발 관련 R&D 지원('09년 730.7억원)을 통해 기술개발 촉진
    - \* u-eco City(219억원), 초고층빌딩(34억원), 도시재생(94억원) 등 기술개발

### V.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이행점검 체계 구축) 추진과제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점검 및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해 수출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기존 총력수출지원단을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수출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 \* 수출총괄(지경부), 품목별 수출담당부처(국토부, 농림부 등), 수출지원부처(기재부, 금융위, 한은 등), 수출지원기관, 품목별 수출담당기관 등
  - (기능) 무역투자진흥회의 보완기능 수행하고, 각 기관별 수출 대책의 이행실적 정기점검 및 기관실적 평가에 반영
    - \* 양식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적을 보고받는 한편, 주기적으로 대면회의도 개최

<수출대책위원회 구성(안)>



- (점검계획) 반기별 구체적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 및 차질없는 이행 유도
  - 아울러, 기업 현장방문,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업계 애로 사항 및 신규 정책수요를 발굴·파악하고 정책에 즉시 반영